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7/18

2012 런던 올림픽에 대한 여론조사

2012년 런던 올림픽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따내며 7위에 올랐던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기대된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11일, 결단식을 가지며 금메달 10개, 종합 10위(10-10) 목표 달성을 다짐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2012 런던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정도, 메달 기대 종목, 관심 종목, 예상 종합 순위,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1,500명
3.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4. 조사기간: 2012년 6월 14~29일(16일간)
5. 표본추출: 2단 층화집락추출법
6. 표본오차: $\pm 2.5\%$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2012 런던 올림픽 한국 10위권 진입 '할 수 있다' 68.1%
- 한국이 금메달을 꼭 땀으면 하는 종목
1위 '수영'(45.9%), 2위 '축구'(35.7%), 3위 '양궁'(28.8%) 순
-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시청할 올림픽 종목
1위 '축구'(61.1%), 2위 '수영'(37.7%), 3위 '양궁'(16.7%) 순
- 올림픽 성적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더 많이 해야' 45.6% vs. '지금도 적당' 40.7%
- 2012 런던 올림픽 '관심 있다' 59.0%, 올림픽 관심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
(2004 아테네 올림픽 67.6% > 2008 베이징 올림픽 63.7% > 2012 런던 올림픽 59.0%)
- 영국 방문 경험 '있다' 2.9%

2012 런던 올림픽 한국 10위권 진입 '가능하다' 68.1%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4~29일 16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에게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성적에 대한 예상을 묻은 결과, 한국 대표팀의 목표인 10위 내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68.1%, '불가능할 것이다' 17.3%, 모름/무응답 14.5%로 목표 달성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조사에서 '10위 내 진입 가능할 것' 80.0%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은 종합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의 10위 내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자들(1,022명)에게 예상 순위를 묻은 결과, 평균 7위의 성적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적과 동일하다.

• 런던 올림픽 10위 내 성적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명)	10위 내 들 수 있을 것	10위 내 들 수 없을 것	모름/무응답
전체		1,500	68.1	17.3	14.5
성별	남성	745	66.6	20.6	12.9
	여성	755	69.7	14.1	16.2
연령별	19~29세	329	70.4	18.5	11.1
	30대	307	67.8	20.5	11.7
	40대	327	72.7	15.1	12.2
	50대	278	67.1	17.7	15.1
	60세 이상	259	61.0	14.4	24.5

(질문)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인 금메달 13개로 종합 7위를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세계 10위 이내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금메달을 꼭 땀으면 하는 종목 1위 '수영'(45.9%), 2위 '축구'(35.7%), 3위 '양궁' (28.8%)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시청할 종목 1위 '축구'(61.1%), 2위 '수영'(37.7%), 3위 '양궁'(16.7%)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시청할 종목'과 '금메달을 꼭 땀으면 하는 종목'을 물어본 결과, '수영', '축구', '양궁' 세 종목이 두 질문 모두에서 상위 3위를 차지해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올림픽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은 금메달을 꼭 땀으면 하는 종목 1위로, '축구'는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시청할 종목 1위로 꼽혔다.

수영에서는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200m와 400m, 그리고 1500m에 출전해, 400m에선 올림픽 2연패뿐 아니라 세계 신기록 수립을 노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원한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금메달 희망 종목, TV 시청 관심 종목 (각각 2개까지 복수응답)

	금메달을 꼭 땀으면 하는 종목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시청할 종목	
순위	종목	%	종목	%
1	수영	45.9	축구	61.1
2	축구	35.7	수영	37.7
3	양궁	28.8	양궁	16.7
4	태권도	13.8	육상	12.0
5	유도	9.1	태권도	6.5
6	육상	8.7	유도	6.2
7	레슬링	6.5	레슬링	3.7
8	배드민턴	4.0	체조	3.4
9	탁구	3.7	배드민턴	3.2
10	체조	3.4	탁구	3.0

(질문)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꼭 금메달을 땀으면 하고 바라시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한 종목만 더 말씀하신다면요?

(질문) 이번 올림픽의 여러 경기 종목 중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지켜보실 종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종목을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 성적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더 많이 해야’ 45.6% vs. ‘지금이 적당’ 40.7%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지금 정도가 적당한지 묻은 결과, ‘더 많이 지원해야’ 45.6%, ‘지금이 적당’ 40.7%. ‘모르겠다’ 13.7%로 ‘더 많이 지원’과 ‘지금이 적당’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질문) 귀하께서는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2012 런던 올림픽 ‘관심 있다’ 59.0%, 올림픽 관심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

2012 런던 올림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도는 ‘많이 있다’ 17.5%, ‘어느 정도 있다’ 41.5% 등 59.0%로 나타났다. ‘별로 없다’ 34.0%, ‘전혀 없다’ 7.0% 등 관심 없다는 응답은 41.0%였다.

한국갤럽이 올림픽 개최 직전 실시한 역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우리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67.6%, 2008년 베이징 올림픽 63.7%, 2012년 런던 올림픽 59.0%의 관심도를 보여, 지난 베이징 올림픽 대비 관심도가

4.7%포인트 하락했다.

(질문) 올해 7월 27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영국 방문 경험 '있다' 2.9%

한편, 2012년 제19회 올림픽 개최지인 영국 방문 경험을 묻은 결과, 2.9% 소수의 국민만이 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방문 경험자는 36.9%였다.

(질문) 귀하께서는 영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의 한국갤럽 연구 3 본부 정현정 선임연구원 02-3702-2613 hjujung@gallup.co.kr